

시 에 계란 가격 급등 ... 5만톤 무관세 수입



▲ 계란 공급 부족으로 구입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한 업체. 사진=유튜브(연합뉴스TV) 캡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신선란·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을 최대 5만톤(t)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소고기·돼지고기 등 다른 축산물도 설 연휴기간 원활히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란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의결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이날 오전까지 산란계는 878

만8,000마리가 살처분 됐다.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가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로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먼저 정부는 기본관세율이 8~30%인 신선란과 계란가공품, 훈제란, 난황분 등 8개 품목에 대해 6월 말까지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은 5만t까지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한도를 조정하고, 신선란의 경우 설 전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여력이 충분한 다른 축산물들은 설 민생안정 대책 기간 동안 계획된 물량이 출하되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 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연휴 기간 평시 대비 각각 1.4배, 1.24배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30년 동안 나무 30억 그루 심겠다”

한국 정부가 산림 노령화로 줄어드는 탄소 흡수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연간 4,560만톤(t) 수준인 흡수량이 30년 뒤 1,400만 t까지 줄어드는 만큼, 어린 나무를 더 심어 흡수량을 3,400만 t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0일 '경향신문' 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날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이 같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한국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t으로 7억3,000만t에 달하는 국가 총배출량의 6.3%를 상쇄하고 있다. 하지만 1970~1980년대 녹화 시기에 집중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t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

를 목표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정하고 12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 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UN)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 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했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 심기' 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전략을 보완해 3분기에 확정하겠다." 면서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이고 범국민적인 과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정밀 지상 관측용 '중형위성' 쏜다



사진=차세대 중형위성 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중형위성1호가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22일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오는 3월 20일 낮 12시 7분 무렵(한국 시각 오후 5시 7분 무렵)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이날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출발해 24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도착한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500kg급 위성으로 국토·자원 관리와 재해·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 지상 관측 영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발사 후 고도 497.8km 궤도에서 약 2개월간 통신 점검 등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정밀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한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한국 산업체와 연구기관이 '범용 위성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 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항우연은 차세대 중형위성 1호 개발사업을 통해 중형위성급 시스템 및 표준본체(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한국 기업에 이전했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내년 초 발사될 예정이며 이어 진행될 3호(우주과학·기술검증), 4호(광역농림상황 관측), 5호(C-밴드영상레이다 수자원관측) 위성 개발은 산업체가 맡는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상담 접수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